

비위론에 기재된 술어의 분류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사의학교실¹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²

김명희¹ · 이병욱² · 김은하¹ **

A Study of classification the predicate in 『Biwiron(脾胃論)』

Kim Myung-hee¹ · Lee Byung-wook² · Kim Eun-ha¹ **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Daegu Haany University

²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Objective and Background : Attempt to express knowledge by IT is the current of the times, knowledge of the oriental medicine have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It takes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oriental medicine terms' and 'system of the predicate' for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concepts to express knowledge by IT technique. Researches for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oriental medicine terms' are in progress already, researches for 'system of the predicate' are insufficient.

Subject of study : We proceeded to study of the predicate in Idongwon(李東垣)'s 『Biwiron(脾胃論)』 has clear theory system and considerable influence upon knowledge of the oriental medicine for studying 'system of the predicate' which expresses knowledge of the oriental medicine in early stage.

Method : Acquire Chinese play a predicate part in 『Biwiron(脾胃論)』, translate the Chinese to answer the context, group the similar predicate, decide representative predicate of group. And attempt to mak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representative predicate with Term management system based on SQL Server 2005.

Results and Considerations : I classify the predicate which predicate diagnosis, treatment, symptoms and knowledge of the oriental medicine into existence, condition, cognition and will. This classification seems to be useful to explain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demonstration and treatment.

Key Words : Biwiron(脾胃論), predicate, classification

I. 序論

* 본 논문은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규정에 따라 김명희의 동일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발표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은하,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E-mail: ehkim@dhu.ac.kr Tel: 053-770-2240

IT 기술을 이용한 정보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접수일(2009년 12월 20일), 수정일(2010년 1월 10일),
게재확정일(2010년 1월 12일)

현재의 세계 정보화 기술 수준은 정보의 탐색과意思決定이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보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여러 학문 및 산업분야 중에서 특히 의료분야는 정보의 양과 복잡성 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때문에 Semantic Web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온톨로지(Ontology) 연구의 수많은 성과들이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 그중 온톨로지는 기계와 인간 사이에 명확한 공통의 의미를 제공하여 상호 이해의 기반을 형성하고, 또한 추론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지식표현과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²⁾.

한의학 분야의 정보화 연구는 한의학 연구의 객관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온톨로지 기술은 한의학 정보화 연구에도 이용되고 있다³⁾. 그런데 온톨로지는 개념(Concepts), 관계(Relations), 개념의 계층(Concept Hierarchy), 관계를 통한 개념과 개념 사이의 함수(Function), 공리(Axioms)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⁴⁾. 때문에 한의학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해석과 의미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⁵⁾,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 지식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적 개념

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기 위한 ‘서술어 체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의계에 서는 명사형 개념을 중심으로 용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최근에 서술어 영역에 대한 연구가 『脾胃論』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⁶⁾. 그러나 최근의 서술어에 관한 연구는 UMLS의 Semantic Type의 명사 분류체계를 차용하여 이루어졌다. 때문에 한의학의 특징인 변증과 치료 및 증상 개념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쉽지 않았다. 이에 단일 개념 단위에서 서술어를 분류하되 한의학의 변증과 치료 및 증상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개별적인 개념연구가 아닌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 표현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개념과 서술어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한의학 지식을 표현하는 ‘서술어 체계’에 관한 초보적 연구를 하기 위하여 비교적 분량이 적고 선행연구가 있었던 『脾胃論』을 대상으로 서술어를 추출하여 서술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연구의 방법

1) 기존의 용어 표준화 관련 연구

기존의 대표적인 용어 표준화 관련 연구로는 WHO_IST⁷⁾ 용어 분류체계, KST⁸⁾, 한의학 Thesaurus⁹⁾, 한의학용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¹⁰⁾,

- 1) 김홍기 외1인. 의료정보학에서의 온톨로지 기술. 대한의료정보학회지. 2003. 9(3). p.214.
- 2) 임형신 외3인. OWL 기반의 온톨로지 도구 비교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6. 12(1). pp.2-3.
- 3) 김동진. 한의학 온톨로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질의 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 47.
이현실. 온톨로지 기반 한의학 처방 지식관리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183.
박경모 외2인. Portege를 이용한 한의학의 구조화된 증상 입력을 위한 온톨로지 개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17(5): 1151-1156.
고유미 외1인. 의미 네비게이션을 지원하는 온톨로지 기반 한의학 논문 검색 시스템 설계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5: 11(2): 1-12.
김철 외2인. 논문분석과 구축사례 조사를 통한 한의학 온톨로지 연구동향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8: 14(2): 121-129.
- 4) 임형신 외3인. OWL 기반의 온톨로지 도구 비교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6. 12(1). pp.2-3.
- 5) 이병욱 외1인. 한의학 용어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대한예방의학학회지. 대한예방의학학회. 12(2). 2009. p.434.

- 6) 정두영. 脾胃論에 기재된 용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한대학교 일반대학원. 경북. 2009.
- 7) IST: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국제표준용어집)의 약자. WHO 서태평양지구 주도하여 한·중·일 합의로 만들어진 표준 용어집이며, 자체적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 8) KST: Korean Standard Terminology(한의학표준용어집)의 약자. 한의학 분과학회별로 용어를 수집하여 제작하였다.
- 9) 한의학 Thesaurus: 한의학 용어에 관한 관련어들을 시스템상에서 표현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용어체계로 한국한의학 연구원에서 2004년 4월 13일 ~ 2004년 11월 30일까지 1차 한의학 용어 시소러스 구축사업을 수행하였다. 인터넷 주소http://210.218.196.132/th/
- 10)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용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2005.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연구IV¹¹⁾ 등이 있다.

가. WHO_IST 용어 분류체계

IST 용어를 위한 분류체계이며, 韓中日 3국이 합의한 분류체계이다. 본 분류체계는 개념중심 분류체계가 아닌 表記 중심 분류체계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한중일 3국이 용어의 정의를 영역하여 기술함으로써 정의에 대한 표준을 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표제어-동의어-용어표기의 관계를 이용한 개념 중심의 참조용어 시스템(Reference terminology)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WHO_IST 용어 분류체계는 7개의 대분류와 43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와 중분류는 다음과 같다.

- 총류(總類): 總論(총론)
- 기초이론(基礎理論): 정기학설(精氣學說), 음양학설(陰陽學說), 오행학설(五行學說), 정(精), 신(神), 기(氣), 혈(血), 진액(津液), 장부(臟腑), 경락(經絡), 형체화관규(形體和官竅), 병인(病因), 병기(病機), 기타(其他)
- 진단학(診斷學): 망진(望診), 문진(問診), 문진(問診), 절진(切診), 팔강변증(八綱辨證), 병인변증(病因辨證), 기혈변증(氣血辨證), 진액변증(津液辨證), 장부변증(臟腑辨證), 각과변증(各科辨證), 육경변증(六經辨證),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 삼초변증(三焦辨證)
- 임상각과(臨床各科): 내과(內科), 외과(外科), 부산과(婦產科), 아과(兒科), 안과(眼科), 이비후구치과(耳鼻喉口齒科), 골상과(骨傷科), 기타(其他)
- 치료학(治療學): 치칙(治則), 치법(治法)
- 침구학(鍼灸學): 침;침법(鍼;鍼法), 구법(灸法), 발관(拔罐)
- 약물치료(藥物治療): 약물(藥物), 방제(方劑)

나. 한의학표준용어집

한의학 표준용어집은 대분류, 중분류와 같은 계층

없이 26종의 분류명이 용어 설명란에 병기되어 있다. 본 용어체계는 정보화를 위한 체계 보다는 인쇄물 출판을 고려한 表記 중심의 체계이며 용어사전으로써의 가치가 있으나, 개념 중심의 지식체계를 구축하는데 직접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체계로 생각된다.

한의학 표준용어집에서 사용한 분류명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경락, 경혈, 기공, 기구, 기타, 기혈, 변증, 병리, 병증, 사상, 생리, 수치, 약물, 약침, 예방, 운기, 정골, 체제, 증상, 진단, 진찰, 징후, 추나, 치법, 침구, 해부

다. Thesaurus 분류체계

한의학 시소러스를 구축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표면상으로 대분류와 중분류로 나뉘어져 있으나, 개별적인 용어 사이의 상위어, 하위어 관계를 통한 계층구조 역시 가지므로 온톨로지 등에서 필요한 개념간의 관계 형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Thesaurus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기초이론(基礎理論): 형체(形體), 장상(臟象), 음양오행(陰陽五行), 정신기혈진액(精神氣血津液), 병인(病因), 병기(病機)
- 의사문헌(醫史文獻): 의가(醫家), 의적(醫籍), 의사제도(醫史制度)
- 변증(辨證): 육경변증(六經辨證), 장부변증(臟腑辨證), 팔강변증(八剛辨證), 기혈진액변증(氣血津液辨證),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
- 진단(診斷): 망진(望診), 문진(問診), 문진(問診), 절진(切診)
- 치료(治療): 치료원칙(治療原則), 본초(本草), 방제(方劑), 경혈(經穴), 침구(鍼灸), 재활추나(再活推拿), 기공양생(氣功養生), 사상체질(四象體質)
- 임상병증(臨床病證): 내과(內科), 부인과(婦人科), 소아과(小兒科), 오관과(五官科), 피부외과(皮膚外科), 신경정신과(神經精神科)

라. 鄭¹²⁾의 『脾胃論』 용어 분류 연구

11)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연구IV : <http://164.125.206.43/meshx/>

12) 정두영. 脾胃論에 기재된 용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경북. 2009.

鄭은 『脾胃論』에 기재된 용어의 문맥상 의미에 따라 體言¹³⁾, 用言¹⁴⁾, 修飾言¹⁵⁾으로 대분류를 설정하고 UMLS의 Semantic Type을 참고하여 9단계 총 154종의 분류명을 가지는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鄭은 기존의 명사 중심의 용어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用言을 분류체계에 추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기존의 명사형의 분류체계를 모방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다만, 용언의 분류체계가 UMLS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의학의 변증과 치료라는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가 되지 못하였으며, 용언으로 구분하지 않고 형용사와 동사의 명사형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는 것 보다 한의학 이론 체계의 설명에 나은 점 또한 두드러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2) 연구 진행 과정

가. 『脾胃論』 원문에서 서술어 추출

원문은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脾胃論』¹⁶⁾를 기준으로 하였고, 서술어는 『東垣脾胃論譯釋』¹⁷⁾의 해석을 참고하여 기계적으로 추출한 이후, 해석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수정하여 작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저자의 견해가 들어갔다. 때문에 저자의 해석 오류로 인한 용어 분류 결과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힌다.

『脾胃論』의 문장에 기록된 모든 서술어를 추출 대상으로 삼아 ‘眠(자다)’, ‘出(나간다)’, ‘臥(눕다)’ 등과 같은 非醫學 용어도 모두 추출하였다. 추출과정에서

『脾胃論』 원문을 DB파일로 입력하고 해당 원문에 포함된 서술어 漢字를 추출하고 문맥상 의미를 함께 입력하였다. 또한 해석의 오류로 인한 서술어 추출의 오류 수정과 출전 정보 明示를 위하여 원문 정보도 함께 저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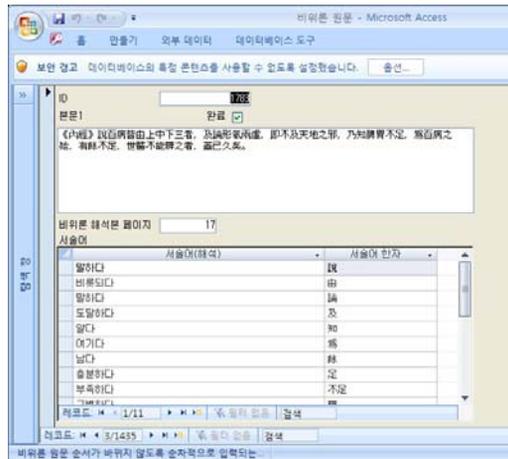


그림 1. Access를 이용한 『脾胃論』의 서술어 입력 화면

나. 추출된 용어의 동일 개념 정리

Access를 이용하여 『脾胃論』 원문 대비 입력된 서술어를 표기를 중심으로 정렬하여 나열한다. 이후 예문을 참고하여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고, 동일한 개념의 다른 표기인지 아니면 동일표기의 다른 개념인지에 따라 개념을 중심으로 대표어, 동의어, 표기로 구분하여 DB를 새롭게 구성한다.

추출된 용어들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단순한 텍스트 형식으로 용어를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따라서 용어의 분류를 시각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용어에 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의학 용어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¹⁸⁾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어(CUI), 동의어(LUI), 표기(SUI) 체계를 지원하고, CUI를 중심으로 설명, 예문 정보를 관리하고 분류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http://164.125.206.43/Soa>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문장의 몸체가 되는 자리에 쓰이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7490200>

14)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동사와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문장 안에서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눈다. 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8617200>

15)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문장 성분. 활용하지 않으며,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2649100>

16) 劉河間 外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7)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역석. 東垣脾胃論譯釋. 서울. 대성문화사. 1992.

18) 이병욱 외1인. 한의학 용어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대한예방한의학회. 12(2). 2009.



그림 2. 용어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동일개념 정리

다) 서술어의 분류

서술어는 구체적 실체 혹은 개념적 실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술어, 인간의 감각 혹은 지적 능력에 의하여 감지되고 인지되는 것을 설명하는 술어, 시간에 따라 발현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술어 및 실체 혹은 현상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술어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행위나 현상의 인지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공간개념, 시간개념, 물질의 생성, 개념간의 관계에 관한 개념에 기초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6단계 106종의 분류명을 가진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림 3. 용어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술어 분류

II. 本論

1. 『脾胃論』의 서술어 분류 계

통도

본 연구에서는 공간개념, 시간개념, 물질의 생성, 개념간의 관계에 관한 개념에 기초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6단계의 106종의 분류명을 가진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관념술어	
1) 관념적 생성과 소멸	
가) 관념적 물질의 생성과 소멸	
(1) 관념적 생성	
(2) 관념적 손상	
(3) 관념적 소멸	
(4) 관념적 충만	
(5) 관념적 부족	
나) 관념적 현상의 시작과 마침	
(1) 관념적 현상의 시작	
(2) 관념적 현상의 마침	
(3) 관념적 현상의 유지	
(4) 관념적 현상의 억제	
(5) 관념적 현상의 항진	
2) 관념적 공간 속성 변화	
가) 관념적 공간 이동	
(1) 방향성 있는 변화	
(가) 관념적 유출	
(나) 관념적 유입	
(다) 관념적 상승	① 관념적 무한상승
	② 관념적 유한상승
(라) 관념적 하강	① 관념적 무한하강
	② 관념적 유한하강
(2) 방향성 없는 변화	
(3) 관념적 위치변화축진술어	

	(4) 관념적 위치변화역제술어
나) 관념적 공간의 확대축소	
(1) 관념적 공간의 축소	
(2) 관념적 공간의 확대	
다) 관념적 위치정보술어	
3) 관념적 성질표현술어	
가) 관념적 한열	
나) 관념적 맛	
다) 관념적 조습	
라) 관념적 촉감	
마) 관념적 청탁	
바) 관념적 경중	
사) 관념적 경도	
나. 실체술어	
1) 생성소멸술어	
가) 물질의 생성소멸	
(1) 생성술어	
(2) 소멸술어	
(3) 실체의 충만	
(4) 실체의 부족	
나) 현상의 시작과 끝	
(1) 현상의 시작	
(2) 현상의 마침	
(3) 현상의 유지	
(4) 현상의 억제	
(5) 현상의 향진	
2) 공간변화술어	
가) 확대축소술어	
(1) 확대술어	
(2) 축소술어	
나) 위치변화술어	
(1) 방향성위치변화술어	
(가) 배출외향	

	(나) 유입내향
(다) 상승	
① 유한상승	
② 무한상승	
(라) 하강	
① 무한하강	
② 유한하강	
(2) 위치변화축진술어	
(3) 무방향성위치변화술어	
(4) 위치변화역제술어	
다) 위치정보술어	
3) 성질변화술어	
가) 온도변화	
나) 색상	
다) 경도	
라) 鮮度	
마) 형태	
바) 조습	
사) 촉감	
아) 청탁	
자) 경중	
차) 점도	
다. 인지의지술어	
1) 의지감정술어	
가) 의지술어	
(1) 독립행동양식	
(2) 사회적행동양식	
나) 감정술어	
2) 자각인지술어	
가) 자각술어	
나) 인지술어	
라. 시간선후관계술어	
마. 관계술어	

1) 상생관계
2) 상극관계
3) 인과관계
4) 주종관계
가) 주도관계
나) 종속관계
5) 동반관계
6) 추종관계
7) 상쟁관계
8) 대체관계
9) 회피관계
10) 균형관계
11) 관계불명

표 1. 『脾胃論』의 서술어 분류

2. 『脾胃論』의 서술어 분류

가) 관념술어¹⁹⁾

(1) 관념적 생성과 소멸²⁰⁾

(가) 관념적 물질의 생성과 소멸²¹⁾

① 관념적 생성²²⁾

- 낳다²³⁾: 낳다, 生
 - 만들다²⁴⁾: 만들다, 立
 - 만들어 배출하다²⁵⁾: 만들어 배출하다, 泌
- 의 14개.

19) 관념속에서만 정의할 수 있는 현상이나 행위
 20) 새로운 물질의 생성 또는 소멸과 관련된 현상이나 행위
 21) 관념적 물질의 양적 변화
 22) 관념속에서 사물의 생성, 추가의 개념을 가지는 현상 또는 행위
 2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五臟別論』云: 胃、大腸、小腸、三焦、膀胱,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2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0. “脾胃之證, 始得則熱中, 今立治始得之證.”
 2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榮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而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 以應刻數焉.”

② 관념적 손상²⁶⁾

- 감소시키다²⁷⁾: 덜다, 침식하다, 줄이다, 감소시키다, 退, 食
 - 감소하다²⁸⁾: 감소하다, 退
 - 손상되다²⁹⁾³⁰⁾³¹⁾: 탈이 생기다, 상하다, 해를 입다, 손상되다, 탈나다, 傷, 納, 容
- 의 2개.

③ 관념적 소멸³²⁾

- 끊어지다³³⁾: 끊어지다, 絕
 - 벌하다³⁴⁾³⁵⁾: 치다, 벌하다, 伐
 - 비다³⁶⁾: 비다, 空, 虛
- 의 11개.

26) 관념속에서 사물 또는 물질의 손상을 뜻하는 현상과 행위
 2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2. “又曰: 壯火食氣.”
 2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3. “脾胃之虛, 怠惰嗜臥, 四肢不收, 時值秋燥令行, 濕熱少退, 體重節痛, 口苦舌乾, 食無味, 大便不調, 小便頻數, 不嗜食, 食不消.”
 2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7. “往者, 遭壬辰之變, 五六十日之間, 爲飲食勞倦所傷而歿者, 將百萬人, 皆謂由傷寒而歿, 後見明之辨內外傷及飲食勞倦傷一論, 而後知世醫之誤.”
 3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故夫飲食失節, 寒溫不適, 脾胃乃傷.”
 3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胃中元氣盛, 則能食而不傷, 過時而不饑.”
 32) 관념속에서 사물 또는 물질의 소멸을 뜻하는 현상과 행위
 33) 上揭書. p.432. “壬膀胱之寒已絕於巳, 癸腎水已絕於午, 今更逢濕旺, 助熱爲邪, 西方北方之寒清絕矣.”
 3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經云: 夫四時陰陽者, 與萬物浮沉於生長之門, 逆其根, 伐其本, 壞其真矣.”
 3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若虛損脾胃, 有宿疾之人, 遇此天暑, 將理失所, 違時伐化, 必困乏無力, 懶語氣短, 氣弱氣促, 似喘非喘, 骨乏無力, 其形如夢寐, 朦朧如煙霧中, 不知身所有也, 必大汗泄.”
 3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脾病則下流乘腎, 土克水, 則骨乏無力, 是爲骨蝕, 令人骨髓空虛, 足不能履地, 是陰氣重疊, 此陰盛陽虛之證.”

④ 관념적 충만³⁷⁾

- 갖추다³⁸⁾: 갖추다, 具
 - 겹쳐지다³⁹⁾: 겹쳐지다, 重疊, 疊
 - 공급하다⁴⁰⁾: 공급하다, 注
- 외 4개.

⑤ 관념적 부족⁴¹⁾

- 부족하다⁴²⁾(43)(44): 부족하다, 乏, 不足, 少
- 얇다⁴⁵⁾: 얇다, 薄

(나) 관념적 현상의 시작과 마침⁴⁶⁾

① 관념적 현상의 시작⁴⁷⁾

- 도달하다⁴⁸⁾: 도달하다, 이르다, 及

- 시행하다⁴⁹⁾: 시행하다, 施, 行,
- 오다⁵⁰⁾: 오다, 來

② 관념적 현상의 마침⁵¹⁾

- 없어지다⁵²⁾: 없어지다, 往
- 한정되다⁵³⁾: 한정되다, 止

③ 관념적 현상의 유지⁵⁴⁾

- 살다⁵⁵⁾(56)(57): 살다, 생존하다, 생명을 유지하다, 이르다, 昌, 生, 度
- 운용하다⁵⁸⁾: 운용하다, 運用
- 계속하다⁵⁹⁾(60): 계속하다, 유지하다, 繼, 維, 維持

37) 관념적 물질요소가 양적으로 충만한 상태

3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4. “一物之內, 氣味兼有, 一藥之中, 理性具焉, 主對治療, 由是而出.”

3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脾病則下流乘腎, 土克水, 則骨乏無力, 是爲骨蝕, 令人骨髓空虛, 足不能履地, 是陰氣重疊, 此陰盛陽虛之證.”

4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7. “天之邪氣, 感則害人五臟, 八風之中, 人之高者也; 水穀之寒熱, 感則害人六腑, 謂水穀入胃, 其精氣上注於肺, 濁溜於腸胃, 飲食不節而病者也; 地之濕氣, 感則害人皮膚筋脈, 必從足始者也.”

41) 관념적 물질의 부족한 상태

4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7. “『內經』說百病皆由上中下三者, 及論形氣兩虛, 即不及天地之邪, 乃知脾胃不足, 爲百病之始, 有餘不足, 世醫不能辨之者, 蓋已久矣.”

4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9. “春夏地之體, 人亦應之, 食罷, 皮肉筋骨血脈皆滑利, 屈伸柔和, 而骨剛力盛, 用力不乏力.”

4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或胸滿少氣短氣者, 肺主諸氣, 五臟之氣皆不足, 而陽道不行也.”

4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4. “氣薄者, 爲陽中之陰, 氣厚者, 爲陽中之陽; 味薄者, 爲陰中之陽, 味厚者, 爲陰中之陰.”

46) 관념적 현상의 시작과 마침

47) 관념적 현상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하는 술어

4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9. “按岐伯所說, 況取穴於天上, 天上者, 人之背上五臟六腑之腧, 豈有生者乎? 輿言及此, 寒心徹骨! 若六淫客邪及上熱下寒, 筋骨皮肉血脈之病, 錯取穴於胃之合, 及諸腹之募者必危, 亦岐伯之言下工, 豈可不慎哉.”

4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3. “云霧不精, 則上應白露不下; 交通不表, 萬物命故不施, 不施則名木多死.”

5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肝木妄行, 胸脅痛, 口苦舌乾, 往來寒熱而嘔, 多怒, 四肢滿閉, 淋瀝便難, 轉筋, 腹中急痛, 此所不勝乘之也.”

51) 관념적 현상의 종료를 뜻하는 술어

5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肝木妄行, 胸脅痛, 口苦舌乾, 往來寒熱而嘔, 多怒, 四肢滿閉, 淋瀝便難, 轉筋, 腹中急痛, 此所不勝乘之也.”

5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聖人著之於經, 謂人以胃土爲本, 成文演義, 互相發明, 不一而足, 粗工不解讀, 妄意使用, 本以活人, 反以害人.”

54) 관념적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는 술어

5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8. “仲景云: 人受氣於水穀以養神, 水穀盡而神去, 故云安穀則昌, 絕穀則亡.”

5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氣或乖錯, 人何以生, 病從脾胃生者四也.”

5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聖人旨意, 重見疊出, 詳盡如此, 且垂戒云, 法於陰陽, 和於術數, 食飲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俱, 而盡終其天年, 度百歲乃去.”

5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脾胃一傷, 五臟互作, 其始病遍身壯熱, 頭痛目眩, 肢體沉重, 四肢不收, 怠惰嗜臥, 爲熱所傷, 元氣不能運用, 故四肢困怠如此.”

5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3. “血榮也, 維持神明也, 血之將會也, 母也), 濁中清者, 榮養於神(降至中脘而爲血, 故曰心主血, 心藏神).”

④ 관념적 현상의 억제⁶¹⁾

• 없음

⑤ 관념적 현상의 향진⁶²⁾

• 향진되다⁶³⁾: 향진되다, 實

(2) 관념적 공간 속성 변화⁶⁴⁾

(가) 관념적 공간 이동⁶⁵⁾

① 방향성있는 변화⁶⁶⁾

i. 관념적 유출⁶⁷⁾

- 넘치다⁶⁸⁾⁶⁹⁾: 넘치다, 흘러넘치다, 遊溢, 溢
 - 밀다⁷⁰⁾: 밀다, 推
 - 빠져나간다⁷¹⁾⁷²⁾: 빠져나간다, 새다, 泄, 離
- 외 1개.

ii. 관념적 유입⁷³⁾

- 돌아가다⁷⁴⁾⁷⁵⁾: 귀결되다, 돌아가다, 復, 歸
 - 먹이다⁷⁶⁾: 먹이다, 食
 - 받다⁷⁷⁾: 받다, 得
- 외 3개.

iii. 관념적 상승⁷⁸⁾

a. 관념적 무한상승⁷⁹⁾

- 오르다⁸⁰⁾⁸¹⁾⁸²⁾⁸³⁾⁸⁴⁾⁸⁵⁾⁸⁶⁾⁸⁷⁾⁸⁸⁾⁸⁹⁾: 오르다, 상승

6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9. “皆先由喜、怒、悲、憂、恐、爲五賊所傷，而後胃氣不行，勞役飲食不節繼之，則元氣乃傷.”

61) 관념적 현상을 억제하는 의미의 슬어

62) 관념적 현상의 향진을 뜻하는 슬어

6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所勝妄行者，言心火旺能令母實，母者，肝木也，肝木旺則挾火勢，無所畏懼而妄行也，故脾胃先受之.”

64) 관념 속에서 사물의 공간 속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이나 행위

65) 관념 속에서 관련 영역의 확대 축소를 동반하지 않고 위치의 이동만을 뜻하는 현상 또는 행위

66) 공간이동의 특정 방향성을 가진 변화

67) 관념적 내부의 사물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변화

6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2. “若飲食不節，損其胃氣，不能克化，散於肝，歸於心，溢於肺，食入則昏冒欲睡，得臥則食在一邊，氣暫得舒，是知升發之氣不行者此也.”

6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飲入於胃，遊溢精氣，上輸於脾.”

7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4. “上氣不足，推而揚之.”

7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4. “『內經』曰：陽氣者，衛外而爲固也，是則氣泄.”

7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7. “若心生癡滯，七神離形，而脈中唯有火矣.”

73) 관념상 신체 외부에 있는 사물을 체내로 받아들이는 변화

7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4. “心火乘脾，乃血受火邪，而不能升發，陽氣復於地中；地者，人之脾也.”

7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8. “此病始於外寒，絡歸外熱，故以治風寒之邪，治其各臟之陰；非止風寒而已，六淫濕、暑、燥、火，皆五臟所受，乃筋骨血脈受邪，各有背上五臟陰以除之.”

7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經云：天食人以五氣，地食人以五味.”

7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五臟皆得胃氣，乃能通利.”

78) 관념상 상승을 뜻하는 슬어

79) 상승의 한계가 없는 현상을 뜻하는 슬어

8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若用辛甘之藥滋胃，當升當浮，使生長之氣旺.”

8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4. “更少加柴胡，使諸經右遷，生發陰陽之氣，以滋春之和氣也.”

8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五常政大論』云：陰精所奉其人壽，陽精所降其人夭.”

8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陰精所奉，謂脾胃既和，穀氣上升，春夏令行，故其人壽.”

8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或水附木勢而上爲眼澀，爲眵，爲冷淚，此皆由肺金之虛而寡於畏也.”

8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一說，下元土盛克水，致督、任、沖三脈盛，火旺煎熬，令水沸騰，而乘脾肺，故痰涎唾出於口也.”

8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2. “血上下行者，足陽明胃之脈衰，則沖脈並陽明之脈，上行於陽分，逆行七十二度，脈之火大旺，逆陽明脈中，血上行，其血衝滿於上；若火時退伏於下，則血下行，故言血上下行，俗謂之忽肥忽瘦者是也.”

하다, 치오르다, 올라가다, 치반다, 奉, 右遷, 升, 擧,
高, 上, 攻沖, 上衝, 奔, 衝, 騰

- 올리다⁹⁰⁾: 올리다, 揚, 升

b. 관념적 유한상승⁹¹⁾

- 뜨다⁹²⁾: 뜨다, 浮
- 오르다⁹³⁾: 오르다, 軒

iv. 관념적 하강⁹⁴⁾

a. 관념적 무한하강⁹⁵⁾

- 배설하다⁹⁶⁾: 배설하다, 瀉, 輸瀉, 出, 泄
- 처지다⁹⁷⁾: 처지다, 下溜
- 흘러내리다⁹⁸⁾: 흘러내리다, 溜

b. 관념적 유한하강⁹⁹⁾

- 가라앉다¹⁰⁰⁾: 가라앉다, 沉
- 숨다¹⁰¹⁾¹⁰²⁾: 숨다, 잠복하다, 匿, 伏

② 방향성 없는 변화¹⁰³⁾

- 섞이다¹⁰⁴⁾¹⁰⁵⁾¹⁰⁶⁾: 뒤섞이다, 섞이다, 錯綜, 錯, 雜
- 짓다¹⁰⁷⁾: 짓다, 旋
- 혼란하다¹⁰⁸⁾: 혼란하다, 爭

8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1. “上焦有熱, 攻沖眼目赤腫, 頭項腫痛, 口舌生瘡; 中焦有熱, 心膈煩躁, 不美飲食; 下焦有熱, 小便赤澀, 大便秘結.”

8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5. “如肺脹, 膨脹而喘咳, 胸高氣滿, 壅盛而上奔者, 多加五味子, 人參次之, 麥門冬又次之, 黃連少許.”

8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4. “如皮毛肌肉之不伸, 無大熱, 不能食而渴者, 加葛根五錢; 燥熱及胃氣上衝, 爲沖脈所逆, 或作逆氣而裏急者, 加炒黃柏, 知母; 覺胸中熱而不渴, 加炒黃芩; 如胸中結滯氣澀, 或有熱病者, 亦各加之.”

9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瀉陰火以諸風藥, 升發陽氣以滋肝膽之用, 是令陽氣生, 上出於陰分, 末用辛甘溫藥接其升藥, 使大發散於陽分, 而令走九竅也.”

91) 상승의 기준점까지 도달하는 상승

9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夏宜汗, 象萬物之浮而有餘也.”

9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7. “『六元政紀論』云: 木鬱則達之者, 蓋木性當動蕩軒舉, 是其本體, 今乃鬱於地中, 無所施爲, 即是風失其性.”

94) 관념상 하강을 뜻하는 술어

95) 하강현상의 제한이 없는 현상을 뜻하는 술어

9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其氣象天, 故瀉而不藏, 此受五臟濁氣, 名曰傳化之府, 此不能久留, 輸瀉者也.”

9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3. “黃芪(一錢) 人參(去蘆頭, 有嗽者去之) 甘草 蒼朮(以上各五分) 柴胡(一味爲上氣不足, 胃氣與脾氣下溜, 乃補上氣, 從陰引陽也) 橘皮(如腹中氣不得運轉, 更加一分) 升麻(以上各二分) 木香(一分或二分)”

9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1. “夫脾胃虛, 則濕土之氣溜於臍下, 腎與膀胱受邪.”

99) 하강의 기준점까지 하강하는 것을 뜻하는 술어

10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以火, 酒二制爲之使, 引苦甘寒藥至頂, 而復入於腎肝之下, 此所謂升降浮沉之道, 自耦而奇, 奇而至耦者也.”

10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5. “脾胃既虛, 不能升浮, 爲陰火傷其生發之氣, 營血大虧, 營氣伏於地中, 陰火熾盛, 日漸煎熬, 血氣虧少; 且心包與心主血, 血減則心無所養, 致使心亂而煩, 病名曰恍; 恍者, 心惑而煩悶不安也.”

10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3. “本部本證脈中兼見沉細, 或見善恐欠之證, 此腎之脾胃病也, 當於本經藥中, 加瀉腎水之浮, 及瀉陰火伏熾之藥.”

103) 공간이동의 특정 방향성에 대한 제한이 없는 변화

10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2. “謬或陰陽錯綜, 勝復之變, 自此而起.”

10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9. “治虛中積冷, 氣弱有傷, 停積胃脘, 不能傳化; 或因氣傷冷, 因饑飽食, 飲酒過多, 心下堅滿, 兩脅脹痛, 心腹大疼, 霍亂吐瀉, 大便頻, 後重遲澀, 久痢赤白, 膿血相雜, 米穀不消, 愈而復發.”

10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氣或乖錯, 人何以生, 病從脾胃生者四也.”

10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9. “上件三味, 內除白面八、九兩, 餘藥同爲細末, 共面和勻, 用新水和作餅子, 如手大, 以漿水煮, 煮至浮於水上, 漉出, 控旋看硬軟, 搗作劑, 丸如梧桐子大, 捻作餅子.”

10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0. “或曰: 經言陽不勝其陰, 則五臟氣爭, 九竅不通; 又脾不及則令人九竅不通, 名曰重強; 又五臟不和, 則九竅不通; 又頭痛耳鳴, 九竅不通利, 腸胃之所生也.”

외 1개.

③ 관념적 위치변화축진술어¹⁰⁹⁾

- 돌다¹¹⁰⁾: 돌다, 轉
- 돌리다¹¹¹⁾: 돌리다, 轉
- 복돋우다¹¹²⁾: 복돋우다, 益

외 4개.

④ 관념적 위치변화억제술어¹¹³⁾

- 머무르다¹¹⁴⁾¹¹⁵⁾¹¹⁶⁾¹¹⁷⁾: 머무르다, 멈추다, 쉬다, 停, 留, 溜, 休, 息
- 붙다¹¹⁸⁾: 붙다, 著, 附, 附著
- 영기다¹¹⁹⁾: 영기다, 凝

외 2개.

(나) 관념적 공간의 확대축소¹²⁰⁾

- 109) 관념적 실체의 위치변화 축진을 의미하는 술어
- 11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腹滿氣不轉者, 勿加.”
- 11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2. “四肢厥逆, 身體沉重, 不能轉側, 頭不可以回顧, 小便澀而時躁.”
- 11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4. “須薄滋味之食, 或美食, 助其藥力, 益升浮之氣, 而滋其胃氣也, 慎不可淡食, 以損藥力, 而助邪氣之降沉也.”
- 113) 관념적 실체의 위치변화를 억제하는 의미의 술어
- 11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4. “如脈弦, 只加風藥, 不可用五苓散; 如小便利病增者, 此內燥津液不能停, 當致津液, 加炒黃柏, 赤茯苓.”
- 11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1. “口不知味, 目中溜火, 而視物眩暈無所見.”
- 11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其氣象天, 故瀉而不藏, 此受五臟濁氣, 名曰傳化之府, 此不能久留, 輸瀉者也.”
- 11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衛者, 出其悍氣之標疾, 而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
- 11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或身體沉重, 走疰疼痛, 蓋濕熱相搏, 而風熱鬱而不伸, 附著於有形也.”
- 11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1. “陰盛生內寒, 厥氣上逆, 寒氣積於胸中而不瀉; 不瀉則溫氣去, 寒獨留; 寒獨留則血凝泣; 血凝泣則脈不通, 其脈盛大以瀉, 故曰寒中.”

① 관념적 공간의 축소¹²¹⁾

- 뒤틀리다¹²²⁾: 뒤틀리다, 수축하다, 轉
- 모이다¹²³⁾: 모이다, 會, 朝
- 묶다¹²⁴⁾: 묶다, 束

외 1개.

② 관념적 공간의 확대¹²⁵⁾

- 드리우다¹²⁶⁾: 드리우다, 垂
- 떨치다¹²⁷⁾¹²⁸⁾: 떨치다, 振, 發振
- 부풀다¹²⁹⁾¹³⁰⁾: 부풀다, 팽창하다, 鼓, 脹, 膨

외 4개.

(다) 관념적 위치정보술어¹³¹⁾

- 120) 관련 영역의 공간적 확대와 축소를 동반하는 현상이나 행위
- 121) 관념적 물질 혹은 현상의 영향범위의 축소를 뜻하는 술어
- 12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或妄見妄聞, 起妄心, 夜夢亡人, 四肢滿閉, 轉筋, 皆肝木火盛而爲邪也.”
- 12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 12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1. “臍下周圍, 如繩束之急, 甚則如刀刺, 腹難舒伸.”
- 125) 관념적 물질 혹은 현상의 영향범위의 확대를 뜻하는 술어
- 12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2. “至立夏少陰之火熾於太虛, 則草木盛茂, 垂枝布葉.”
- 12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又云: 土不及, 四維有埃云, 潤澤之化不行, 則春有鳴條鼓拆之政; 四維發振拉飄騰之變, 則秋有肅殺霖淫之復.”
- 12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2. “至秋而太陰之運, 初自天而下逐, 陰降而徹地, 則金振燥令, 風厲霜飛, 品物鹹殞, 其枝獨存, 若乎毫毛.”
- 12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又云: 土不及, 四維有埃云, 潤澤之化不行, 則春有鳴條鼓拆之政; 四維發振拉飄騰之變, 則秋有肅殺霖淫之復.”
- 13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5. “如肺脹, 膨脹而喘咳, 胸高氣滿, 壅盛而上奔者, 多加五味子, 人參次之, 麥門冬又次之, 黃連少許.”
- 131) 관념상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물질의 위치정보를 표현하

- 덮다¹³²⁾¹³³⁾: 덮다, 覆, 掩
 - 뚫다¹³⁴⁾: 뚫다, 徹
 - 매달리다¹³⁵⁾: 매달리다, 繫
- 외 3개.

(3) 관념적 성질표현술어¹³⁶⁾

(가) 관념적 한열¹³⁷⁾

- 데우다¹³⁸⁾¹³⁹⁾¹⁴⁰⁾: 따뜻하게 하다, 찌다, 熏, 暖, 熏蒸
- 뜨겁다¹⁴¹⁾¹⁴²⁾¹⁴³⁾: 뜨거워지다, 뜨겁다, 煎, 熾, 熬, 熱, 炆

- 타다¹⁴⁴⁾¹⁴⁵⁾: 타다, 焦
- 외 1개.

(나) 관념적 조습¹⁴⁶⁾

- 적시다¹⁴⁷⁾¹⁴⁸⁾¹⁴⁹⁾: 적시다, 潤, 沾, 濡

(다) 관념적 청탁¹⁵⁰⁾

- 없음

(라) 관념적 경중¹⁵¹⁾

- 없음

(마) 관념적 맛¹⁵²⁾

- 달다¹⁵³⁾: 달다, 甘
- 맵다¹⁵⁴⁾: 맵다, 辛

는 술어

- 13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1. “自汗尤甚, 若陰氣覆在皮毛之上.”
- 13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0. “其脾長一尺, 掩太倉, 太倉者, 胃之上口也.”
- 13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9. “按岐伯所說, 況取穴於天上, 天上者, 人之背上五臟六腑之膻, 豈有生者乎? 興言及此, 寒心徹骨! 若六淫客邪及上熱下寒, 筋骨皮肉血脈之病, 錯取穴於胃之合, 及諸腹之募者必危, 亦岐伯之言下工, 豈可不慎哉.”
- 13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9. “起於下焦, 其系繫於心.”
- 136) 관념적 실체의 성질변화를 표시하는 술어
- 137) 관념적 실체의 한열을 의미하는 술어
- 13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0. “脾受胃氣, 乃能熏蒸腐熟五穀者也.”
- 13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此謂之氣者,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溉.”
- 14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1. “常服調氣暖胃, 化宿食, 消痰飲, 辟風寒冷濕, 四時非節之氣.”
- 14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一說, 下元土盛克水, 致督、任、沖三脈盛, 火旺煎熬, 令水沸騰, 而乘脾肺, 故痰涎唾出於口也.”
- 14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一說, 下元土盛克水, 致督、任、沖三脈盛, 火旺煎熬, 令水沸騰, 而乘脾肺, 故痰涎唾出於口也.”
- 14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又云: 陰虛則內熱,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爲內熱.”

- 14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2. “脾爲勞倦所傷, 勞則氣耗, 而心火熾動, 血脈沸騰, 則血病, 而陽氣不治, 陰火乃獨炎上, 而走於空竅, 以至燎於周身, 反用熱藥以燥脾胃, 則謬之謬也.”
- 14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若風犯汗眼, 皮膚必瘙, 項筋皮枯毛焦, 身體皆重, 肢節時有煩疼, 或一身盡痛, 或渴或不渴, 或小便黃澀, 此風濕相搏也.”
- 146) 관념적 실체의 습도를 표현하는 술어
- 14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夫脾胃虛弱, 過六七月間, 河漲霖雨, 諸物皆潤, 人汗沾衣, 身重短氣, 甚則四肢痿軟, 行步不正, 腳軟, 眼黑欲倒, 此腎水與膀胱俱竭之狀也, 當急救之.”
- 14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大便秘澀, 以當歸、桃仁、麻子仁、鬱李仁、皂角仁, 和血潤腸, 如燥藥則所當禁者.”
- 14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1. “此皆屬胃, 胃虛則無所受氣而亦虛, 津液不濡, 睡覺口燥咽乾, 而皮毛不澤也.”
- 150) 관념적 실체의 청탁을 서술하는 술어
- 151) 관념적 실체의 경중을 서술하는 술어
- 152) 관념적 실체의 오미속성을 의미하는 술어
- 15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戊濕, 其本氣平, 其兼氣溫、涼、寒、熱, 在人以胃應之; 己土, 其本味鹹, 其兼味辛、甘、酸、苦, 在人以脾應之.”
- 15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戊濕, 其本氣平, 其兼氣溫、涼、寒、熱, 在人以胃應之; 己土, 其本味鹹, 其兼味辛、甘、酸、苦, 在人以脾應之.”

• 시다¹⁵⁵): 시다, 酸

(바) 관념적 촉감¹⁵⁶)

• 꺾끄럽다¹⁵⁷): 꺾끄럽다, 瀟, 澗

(사) 관념적 정도¹⁵⁸)

• 없음

나) 실체술어¹⁵⁹)

(1) 생성소멸술어¹⁶⁰)

(가) 물질의 생성소멸¹⁶¹)

① 생성술어¹⁶²)

- 더하다¹⁶³164)165): 더하다, 증가시키다, 추가하다, 보태다, 증가하다, 加, 接, 增, 倍
- 살찌다¹⁶⁶): 살찌다, 肥

• 싹트다¹⁶⁷): 싹트다, 坼
외 1개.

② 소멸술어¹⁶⁸)

- 닳다¹⁶⁹): 닳다, 拭
- 빼다¹⁷⁰): 빼다, 去
- 상하게 하다¹⁷¹): 상하게 하다, 損
외 4개.

③ 실체의 충만¹⁷²)

• 무성하다¹⁷³174): 무성하다, 우거지다, 榮, 茂

④ 실체의 부족¹⁷⁵)

• 적다¹⁷⁶): 적다, 欠

(나) 현상의 시작과 끝¹⁷⁷)

① 현상의 시작¹⁷⁸)

15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戊濕, 其本氣平, 其兼氣溫、涼、寒、熱, 在人以胃應之; 己土, 其本味鹹, 其兼味辛、甘、酸、苦, 在人以脾應之.”

156) 관념적 실체의 촉감을 표현하는 술어

15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1. “陰盛生內寒, 厥氣上逆, 寒氣積於胸中而不瀉; 不瀉則溫氣去, 寒獨留; 寒獨留則血凝泣; 血凝泣則脈不通, 其脈盛大以瀟, 故曰寒中.”

158) 관념적 실체의 단단하기 정도를 서술하는 술어

159)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현상이나 행위로 물리적, 공간적, 화학적 변화를 표현하는 술어

160) 실제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생성과 소멸

161) 물질의 양적변화를 뜻하는 술어

162) 물질의 생성을 표현하는 술어

16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瀉陰火以諸風藥, 升發陽氣以滋肝膽之用, 是令陽氣生, 上出於陰分, 末用辛甘溫藥接其升藥, 使大發散於陽分, 而令走九竅也.”

16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8. “今之酒病者, 往往服酒症丸, 大熱之藥下之, 又有用牽牛、大黃下之者, 是無形元氣受病, 反下有形陰血, 乖誤甚矣! 酒性大熱, 以傷元氣, 而復重瀉之, 況亦損腎水, 真陰及有形陰血俱爲不足, 如此則陰血愈虛, 真水愈弱, 陽毒之熱大旺, 反增其陰火, 是以元氣消耗折人長命; 不然, 則虛損之病成矣.”

16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曆觀諸篇而參考之, 則元氣之充足, 皆由脾胃之氣無所傷, 而後能滋養元氣; 若胃氣之本弱, 飲食自倍, 則脾胃之氣既傷, 而元氣亦不能充, 而諸病之所由生也.”

16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

藥出版社. 1997. p.420. “脾胃俱旺, 則能食而肥; 脾胃俱虛, 則不能食而瘦.”

16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2. “少陽之氣始於泉下, 引陰升而在天地人之上, 即天之分, 百穀草木皆甲坼於此時也.”

168) 물질의 소멸을 표현하는 술어

16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夜不安寢, 衾厚熱壅故也, 當急去之, 仍拭汗; 或薄而不安, 即加之, 睡自穩也.”

17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或渴, 或小便閉澀, 赤黃多少, 從五苓散去桂, 摘一二味加正藥中.”

17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4. “<調理脾胃治驗治法用藥若不明升降浮沉差互反損論>”

172) 실체의 충만한 상태를 서술하는 용어

17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3. “惡氣不發, 風雨不節, 白露不下, 則菀蕪不榮; 賊風數至, 暴雨數起, 天地四時不相保, 與道相失, 則未央絕滅.”

17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2. “至立夏少陰之火熾於太虛, 則草木盛茂, 垂枝布葉.”

175) 실체의 부족한 상태를 설명하는 술어

17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5. “『脈經』云: 風寒汗出, 肩背痛, 中風, 小便數而欠者, 風熱乘其肺, 使肺氣鬱甚也, 當瀉風熱, 以通氣防風湯主之.”

177) 현상의 시작과 마침을 뜻하는 술어

• 시작하다(179)(180)(181): 시작하다, 생기다, 발생하다, 始, 生, 作

② 현상의 마침(182)

• 그치다(183)(184): 그치다, 멈추다, 息, 止

③ 현상의 유지(185)

• 살리다(186): 살리다, 活

④ 현상의 억제(187)

• 없음

⑤ 현상의 항진(188)

• 없음

(2) 공간변화술어(189)

(가) 확대축소술어(190)

178) 실체와 관련된 현상의 시작을 표현하는 술어

17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今舉經中言病從脾胃所生, 及養生當實元氣者條陳之.”

18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7. “天之邪氣, 感則害人五臟, 八風之中, 人之高者也; 水穀之寒熱, 感則害人六腑, 謂水穀入胃, 其精氣上注於肺, 濁溜於腸胃, 飲食不節而病者也; 地之濕氣, 感則害人皮膚筋脈, 必從足始者也.”

18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7. “上發二書之微, 下祛千載之惑, 此書果行, 壬辰藥禍, 當無從而作.”

182) 실체와 관련된 현상의 종료를 뜻하는 술어

18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病人自以爲渴, 醫者治以五苓散, 謂止渴燥, 而反加渴燥, 乃重竭津液, 以至危亡.”

18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3. “根於內者, 名曰神機, 神去則機息.”

185) 실체와 관련된 현상의 지속을 뜻하는 술어

18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聖人著之於經, 謂人以胃土爲本, 成文演義, 互相發明, 不一而足, 粗工不解讀, 妄意使用, 本以活人, 反以害人.”

187) 실체와 관련된 현상의 억제를 표현하는 술어

188) 실체와 관련된 현상의 항진을 뜻하는 술어

189) 실제 현상계에서 사물의 공간 속성의 변화를 조래하는 현상이나 행위

190) 공간변화 영역의 확대와 축소를 표현하는 술어

① 확대술어(191)

• 이완하다(192)(193): 느슨하다, 이완하다, 緩

• 붓다(194): 붓다, 腫

• 소리나다(195)(196): 소리나다, 울리다, 鳴, 響

② 축소술어(197)

• 가라앉히다(198): 가라앉히다, 사라지게 하다, 消

• 땅기다(199)(200)(201)(202): 땅기다, 팽팽하다, 굳다, 窄狹, 緊, 牽, 控, 急, 引, 搐, 強

• 오그라지다(203): 오그라지다, 縮

191) 물질의 공간변화가 확대되는 것을 표현하는 술어

19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夫胃病其脈緩, 脾病其脈遲, 且其人當臍有動氣, 按之牢若痛, 若火乘土位, 其脈洪緩, 更有身熱心中不便之證.”

19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4. “經云: 急者緩之.”

19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5. “如噎痛頰腫, 脈洪大, 面赤者, 加黃芩、桔梗、甘草各五分.”

19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6. “治大便一日三四次, 瀉而不多, 有時泄瀉, 腹中鳴, 小便秘.”

19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9. “食罷, 四肢矯健, 精、氣、神皆出, 九竅通利是也, 口鼻氣息, 自不聞其音, 語聲清響如鍾.”

197) 물질의 공간변화가 축소되는 것을 표현하는 술어

19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5. “如耳鳴目黃, 頰領腫, 頸、肩、臑、肘、臂外後廉痛, 面赤, 脈洪大者, 以羌活、防風、甘草、槁本, 通其經血, 加黃芩、黃連消其腫, 以人參、黃芪益其元氣而瀉其火邪; 如脈緊者, 寒也, 或面白善噎, 或面色惡, 皆寒也, 亦加羌活等四味, 當瀉足太陽, 不用連、芩, 少加附子以通其脈; 面色惡, 多悲恐者, 更加桂、附.”

19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腹中窄狹, 或氣短者, 亦加之.”

20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又云: 鹹病寒中, 復則收政嚴峻, 胸脅暴痛, 下引少腹, 善太息, 蟲食甘黃, 氣客於脾, 民食少失味.”

20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如腹中急縮, 或脈弦, 加防風, 急甚加甘草.”

20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1. “胸中閉塞, 時顯嘔噦, 或有痰嗽, 口沃白沫, 舌強.”

20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1. “胸中閉塞, 時顯嘔噦, 或有痰嗽, 口沃白沫, 舌強.”

20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1. “胸中閉塞, 時顯嘔噦, 或有痰嗽, 口沃白沫, 舌強.”

외 1개.

(나) 위치변화슬어²⁰⁴⁾

① 방향성위치변화슬어²⁰⁵⁾

i. 배출의향²⁰⁶⁾

- 우러르다²⁰⁷⁾: 우러르다, 仰
- 땀내다²⁰⁸⁾: 땀내다, 汗
- 배변하다²⁰⁹⁾²¹⁰⁾: 배변하다, 走, 坐

외 12.

ii. 유입내향²¹¹⁾

- 감촉되다²¹²⁾: 감촉되다, 感
- 굽히다²¹³⁾: 굽히다, 屈
- 넣다²¹⁴⁾²¹⁵⁾: 넣다, 裹, 內, 入

藥出版社. 1997. p.420. “如腹中急縮, 或脈弦, 加防風, 急甚加甘草.”

- 204) 물질의 위치변화를 표현하는 슬어
- 205) 물질의 공간변화가 특정 방향성을 가진 위치변화를 표현하는 슬어
- 206) 실체의 공간확대 없이 외향으로 위치가 이동되는 것을 뜻하는 슬어
- 20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8. “亂於肺, 則俛仰喘喝, 按手以呼.”
- 20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忌浴當風, 汗當風.”
- 20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1. “如不利者, 非血結血秘而不通也, 是熱則生風, 其病人必顯風證, 單血藥不可復加之, 止常服黃芪人參湯藥, 只用羌活, 防風以上各五錢, 二味, 咬咀, 以水四盞, 煎至二盞, 去渣, 空心服之, 其大便必大走也, 一服便止.”
- 21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腹中刺痛者, 或周身刺痛者; 或裏急者, 腹中不寬快是也; 或虛坐而大便不得者, 皆血虛也, 血虛則裏急; 或血氣虛弱而目睛痛者, 皆加當歸身.”
- 211) 실체의 공간축소 없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뜻하는 슬어
- 21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7. “天之邪氣, 感則害人五臟, 八風之中, 人之高者也; 水穀之寒熱, 感則害人六腑, 謂水穀入胃, 其精氣上注於肺, 濁溜於腸胃, 飲食不節而病者也; 地之濕氣, 感則害人皮膚筋脈, 必從足始者也.”
- 21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9. “春夏地之體, 人亦應之, 食罷, 皮肉筋骨血脈皆滑利, 屈伸柔和, 而骨剛力盛, 用力不乏力.”
- 21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或日病而生內障者, 脾裹血, 胃

외 10개.

iii. 상승²¹⁶⁾

a. 유한상승²¹⁷⁾

- 딸꾹질하다²¹⁸⁾: 딸꾹질하다, 噦
- 뜨다²¹⁹⁾: 뜨다, 浮
- 활동하다²²⁰⁾: 움직이다, 활동하다, 舉

b. 무한상승²²¹⁾

- 김매다²²²⁾: 김매다, 耨
- 날리다²²³⁾: 날리다, 飛
- 뽑다²²⁴⁾: 잡아당기다, 뽑다, 拔

외 3개.

iv. 하강²²⁵⁾

主血, 心主脈, 脈者, 血之附也, 或云心主血, 又云肝主血, 肝之竅開於目也.”

- 21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7. “除蒼朮另作片子, 水一碗半, 煮至二大盞, 內諸藥, 同煎至一大盞, 去渣, 稍熱服, 空心食前.”
- 216) 실체의 상승
- 217) 실체가 기준점 까지 상승하는 것
- 21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1. “治脾胃不和, 不思飲食, 心腹脅肋, 脹滿刺痛, 口苦無味, 胸滿氣短, 嘔噦惡心, 噫氣吞酸, 面色萎黃, 肌體瘦弱, 怠惰嗜臥, 體重節痛, 常多自利, 或發霍亂, 及五噎, 八痞, 膈氣, 反胃.”
- 21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9. “上件三味, 內除白面八, 九兩, 餘藥同爲細末, 共面和勻, 用新水和作餅子, 如手大, 以漿水煮, 煮至浮於水上, 漉出, 控旋看硬軟, 搗作劑, 丸如梧桐子大, 捻作餅子.”
- 22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玉機真臟論』曰: 脾大過, 則令人四肢不舉, 其不及, 則令人九竅不通, 名曰重強.”
- 221) 실체가 정해진 한도없이 상승하는 것
- 22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玉機真臟論』曰: 脾大過, 則令人四肢不舉, 其不及, 則令人九竅不通, 名曰重強.”
- 22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2. “至秋而太陰之運, 初自天而下逐, 陰降而徹地, 則金振燥令, 風厲霜飛, 品物鹹殞, 其枝獨存, 若乎毫毛.”
- 22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5. “如脊痛項強, 腰似折, 項似拔, 上沖頭痛者, 乃足太陽經之不行也, 以羌活勝濕湯主之.”

a. 무한하강²²⁶⁾

- 내려가게 하다²²⁷⁾: 내려가게 하다, 壓, 鎮
- 내려가다²²⁸⁾/229)230): 내려가다, 하강하다, 빠져 들어가다, 陷, 降, 下

b. 유한하강²³¹⁾

- 가라앉다²³²⁾: 가라앉다, 沉
 - 가만히 있다²³³⁾: 가만히 있다, 伏
 - 내리치다²³⁴⁾: 내리치다, 下
- 외 7개.

② 무방향성 위치변화술어²³⁵⁾

- 경련하다²³⁶⁾: 경련하다, 闞
- 고개를 돌리다²³⁷⁾: 고개를 돌리다, 顧, 回顧
- 꿈틀거리다²³⁸⁾: 꿈틀거리다, 蠕

225) 실체의 하강

226) 실체가 정해진 한도없이 하강하는 것

22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3. “仍多飲熱湯, 服畢少時, 便以美飲食壓之, 使不令胃中留停, 直至下元, 以瀉沖脈之邪也.”

22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或多怒者, 風熱下陷於地中也.”

22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五常政大論』云: 陰精所奉其人壽, 陽精所降其人夭.”

23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所以然者, 水穀入口, 則胃實而腸虛, 食下, 則腸實而胃虛, 故口實而不滿, 滿而不實也.”

231) 실체가 기준점까지 하강하는 것

23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怠惰嗜臥, 有濕, 胃虛不能食, 或沉困, 或泄瀉, 加蒼朮; 自汗, 加白朮.”

23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8. “故氣亂於心, 則煩心密嘿, 俯首靜伏.”

23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9. “上件三味等分, 同一處研勻, 煉蜜成劑, 白內杵千百下, 丸如大豌豆大.”

235) 방향성 없이 움직이는 현상을 서술하는 술어

23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霍亂, 體重腹痛, 筋骨繇復, 肌肉闞酸, 善怒.”

23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5. “如肩背痛, 不可回顧, 此手太陽氣鬱而不行, 以風藥散之.”

23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6. “治虛風證, 能食, 麻木, 牙關急

외 6개.

③ 위치변화촉진술어²³⁹⁾

- 거르다²⁴⁰⁾: 거르다, 漚, 泌, 漚
 - 걷다²⁴¹⁾/242): 걷다, 踐, 履, 行
 - 교체하다²⁴³⁾: 교체하다, 換
- 외 4개.

④ 위치변화억제술어²⁴⁴⁾

- 기울다²⁴⁵⁾: 기울다, 欹
 - 느리다²⁴⁶⁾: 느리다, 遲
 - 단다²⁴⁷⁾: 단다, 澁
- 외 8개.

(다) 위치정보술어²⁴⁸⁾

- 가득 차다²⁴⁹⁾: 가득 차다, 滿

搖, 目內蠕, 胃中有風, 獨面腫.”

239) 물질의 공간변화가 방향성에 관계없이 촉진과 억제 여부를 표현하는 술어

24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又云: 中焦之所出, 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爲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於此.”

24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饑而睡不安, 則宜少食; 飽而睡不安, 則少行坐.”

24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2. “土火復之, 及三脈爲邪, 則足不任身, 足下痛, 不能踐地, 骨之無力, 喜睡, 兩丸冷, 腹陰陰而痛, 妄聞妄見, 腰脊背脚皆痛.”

24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4. “凡藥之所用, 皆以氣味爲主, 補瀉在味, 隨時換氣.”

244) 실체의 위치변화를 억제하는 의미의 술어

24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6. “燥金受濕熱之邪, 絕寒水生化之源, 源絕則腎虧, 痿厥之病大作, 腰以下痿軟癱, 不能動, 行走不正, 兩足欹側.”

24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夫胃病其脈緩, 脾病其脈遲, 且其人當臍有動氣, 按之牢若痛, 若火乘土位, 其脈洪緩, 更有身熱心中不便之證.”

24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須以手摩汗孔合, 方許見風, 必無中風中寒之疾.”

248) 가깝다, 멀다, 높다, 낮다, 깊다와 같이 사물의 현재 위치 정보를 표현하는 술어

- 감싸다: 감싸다, 交
 - 거주하다²⁵⁰⁾²⁵¹⁾²⁵²⁾²⁵³⁾: 거주하다, 살다, 거처하다, 머무르다, 居, 處, 居止
- 외 20개.

(3) 성질변화술어²⁵⁴⁾

(가) 온도변화²⁵⁵⁾

- 굽다²⁵⁶⁾²⁵⁷⁾: 굽다, 煨, 炙, 炮
- 끓다²⁵⁸⁾: 끓다, 沸
- 끓이다²⁵⁹⁾²⁶⁰⁾: 끓이다, 달이다, 煮, 湯, 煎

외 10개.

(나) 색상²⁶¹⁾

- 밝다²⁶²⁾²⁶³⁾: 밝다, 밝아지다, 明, 修明
 - 붉다²⁶⁴⁾: 붉다, 赤
 - 비추다²⁶⁵⁾: 비추다, 耀
- 외 1개.

(다) 경도²⁶⁶⁾

- 견고하다²⁶⁷⁾: 견고하다, 固

(라) 鮮度²⁶⁸⁾

- 없음

(마) 형태²⁶⁹⁾

- 갈다²⁷⁰⁾²⁷¹⁾: 갈다, 研, 耕, 磨

24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所謂五臟者, 藏精氣而不瀉也, 故滿而不能實; 六腑者, 傳化物而不藏, 故實而不能滿.”

25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5. “如甚則交兩手而督者, 真氣大虛也, 若氣短, 加黃芪、五味子、人參; 氣盛, 加五味子、人參、黃芩、荊芥穗; 冬月, 去荊芥穗, 加草豆蔻仁.”

25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如衣薄而氣短, 則添衣, 於無風處居止; 氣尚短, 則以沸湯一碗熏其口鼻, 即不短也.”

25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如衣薄而氣短, 則添衣, 於無風處居止; 氣尚短, 則以沸湯一碗熏其口鼻, 即不短也.”

25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如居周密小室, 或大熱而處寒涼氣短, 則出就風日.”

254) 실재 현상계에서 사물의 성질변화를 표현하는 술어

255) 온도변화를 유발하는 술어

25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3. “升陽益胃湯黃芪(二兩) 半夏(湯洗, 此一味脈瀼者宜用) 人參(去蘆) 甘草(炙, 以上各一兩) 防風(以其秋旺, 故以辛溫瀉之) 白芍藥 羌活 獨活(以上各五錢) 橘皮(連瓢, 四錢) 茯苓(小便利, 不渴者勿用) 澤瀉(不淋勿用) 柴胡 白朮(以上各三錢) 黃連(二錢)”

25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9. “乾薑(炮制, 三分) 巴豆霜(五分) 人參(去蘆) 肉桂(去皮, 以上各一錢) 柴胡(去苗) 小椒(炒去汗並閉目, 去子) 白朮(以上各一錢五分) 厚樸(去皮, 銼, 炒, 秋冬加七錢) 酒煮苦楝 白茯苓 砂仁(以上各三錢) 川烏頭(炮, 去皮臍, 四錢五分) 知母(四錢, 一半炒, 一半酒炒)”

25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一說, 下元土盛克水, 致督、任、沖三脈盛, 火旺煎熬, 令水沸騰, 而乘脾肺, 故痰涎唾出於口也.”

25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3. “升陽益胃湯黃芪(二兩) 半夏(湯洗, 此一味脈瀼者宜用) 人參(去蘆) 甘草(炙,

以上各一兩) 防風(以其秋旺, 故以辛溫瀉之) 白芍藥 羌活 獨活(以上各五錢) 橘皮(連瓢, 四錢) 茯苓(小便利, 不渴者勿用) 澤瀉(不淋勿用) 柴胡 白朮(以上各三錢) 黃連(二錢)”

26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3. “上件咬咀, 每且三錢, 水二盞, 煎至一盞, 去渣, 大溫服, 早飯後、午飯前, 間日服.”

261) 색상을 표현하는 술어

26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3. “天明則日月不明, 邪害空竅, 陽氣者閉塞, 地氣者冒明.”

26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26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0. “治瀉痢赤白, 臍腹脹痛, 久不愈者.”

26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3. “肝之竅通於目, 離爲火, 能耀光而見物, 故分別五色也, 肝爲之舍.”

266) 물질의 경도변화를 표현하는 술어

26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生氣通天論』云: 蒼天之氣清淨, 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因時之序.”

268) 신선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술어

269) 갈다, 밋다, 자르다 등의 형태 변화를 의미하는 술어

27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7. “夫脾者, 行胃津液, 磨胃中之穀, 主五味也.”

- 녹이다²⁷²): 녹이다, 溶
- 문드러지다²⁷³): 문드러지다, 漬
외 8개.

(바) 조습²⁷⁴)

- 없음

(사) 촉감²⁷⁵)

- 없음

(아) 청탁²⁷⁶)

- 깨끗하다²⁷⁷): 깨끗하다, 精, 淨
- 맑다²⁷⁸279): 맑다, 淸, 淸, 淸肅, 肅
- 흐리다²⁸⁰): 흐리다, 陰

(자) 경중²⁸¹)

- 27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大法春宜吐, 象萬物之發生, 耕耨科斫, 使陽氣之鬱者易達也.”
- 27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9. “上七味, 除巴豆粉、百草霜、杏仁三味, 餘四味搗爲細末, 卻與三味同拌, 研令細, 用好蠟置和, 先將蠟六兩溶化作汁, 以重綿濾去渣, 更以好酒一升, 於銀、石器內煮蠟溶, 滾數沸, 傾出, 候酒冷, 其蠟自浮於上, 取蠟秤用丸.”
- 27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若肌肉濡潰, 瘡而不仁, 傳力肉痿誣.”
- 274) 습도에 관하여 서술하는 술어
- 275) 촉감에 대하여 서술하는 술어
- 276)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투명도에 대하여 서술하는 술어
- 27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生氣通天論』云: 蒼天之氣淸淨, 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因時之序.”
- 27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人參之甘, 補元氣, 瀉熱火也; 麥門冬之苦寒, 補水之源, 而淸肅燥金也; 五味子之酸以瀉火, 補庚大腸與肺金也.”
- 27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生氣通天論』云: 蒼天之氣淸淨, 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因時之序.”
- 28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遇天氣變更, 風寒陰晦, 宜預避之.”
- 281) 실체의 무게 또는 비중을 서술하는 술어

- 무게를 달다²⁸²): 무게를 달다, 秤

(차) 점도²⁸³)

- 끈끈하다²⁸⁴): 끈끈하다, 粘
- 묽다²⁸⁵): 묽다, 漚
- 진하다²⁸⁶): 진하다, 稠

다) 인지의지술어²⁸⁷)

(1) 의지감정술어²⁸⁸)

(가) 의지술어²⁸⁹)

- 시술하다²⁹⁰): 시술하다, 用, 使用
- 원하다²⁹¹292): 바라다, 청하다, 하고자 하다, 원하다, 欲, 請
- 전념하다²⁹³): 전념하다, 傳

28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3. “每服秤三錢或五錢, 水二盞, 煎至一盞, 去渣, 稍熱服, 量虛實施用.”

283) 실체의 끈끈한 정도를 서술하는 술어

28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5. “又疑藥力小, 復加七八十丸, 下兩行, 前證仍不減, 復添吐逆, 食不能停, 痰唾稠粘, 湧出不止, 眼黑頭旋, 惡心煩悶, 氣短促上喘無力, 不欲言.”

28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6. “治大便一日三四次, 漚而不多, 有時泄瀉, 腹中鳴, 小便黃.”

28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3. “夫脈弦洪緩, 而沉按之中之下得時一澀, 其證: 四肢滿悶, 肢節煩疼, 難以屈伸, 身體沉重, 煩心不安, 忽肥忽瘦, 四肢懶倦, 口失滋味, 腹難舒伸, 大小便淸利而數, 或上飲下便, 或大便澀滯不行, 一二日一見, 夏月飧泄, 米穀不化, 或便後見血, 見白膿, 胸滿短氣, 膈咽不通, 或痰嗽稠粘, 口中沃沫, 食入反出, 耳鳴耳聾, 目中流火, 視物昏花, 脣肉紅絲, 熱壅頭目, 不得安臥, 嗜臥無力, 不思飲食, 調中益氣湯主之.”

287) 의지와 인지 상태를 표현하는 술어

288) 생명의 의지와 감정을 표현하는 술어

289) 생명의 의지를 나타내는 술어

29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聖人著之於經, 謂人以胃土爲本, 成文演義, 互相發明, 不一而足, 粗工不解讀, 妄意使用, 本以活人, 反以害人.”

29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至於五味, 口嗜而飲食之, 必自裁制, 勿使過焉, 過則傷其正也.”

29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8. “帝曰: 允乎哉道, 明乎哉論, 請著之玉版, 命曰治亂也.”

29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3. “每服秤三錢或五錢, 水二盞, 煎至一盞, 去渣, 稍熱服, 量虛實施用.”

외 3개.

① 독립 행동양식²⁹⁴⁾

- 가리다²⁹⁵⁾: 헤아리다, 가리다, 計
 - 가지다²⁹⁶⁾: 가지다, 取, 取之
 - 감량하다²⁹⁷⁾: 감량하다, 減
- 외 12개.

② 사회적 행동양식²⁹⁸⁾

- 가르치다²⁹⁹⁾³⁰⁰⁾: 가르치다, 垂
 - 거스르다: 거스르다, 反, 逆
 - 공격하다³⁰¹⁾: 공격하다, 攻
- 외 9개.

(나) 감정슬어³⁰²⁾

- 귀찮아하다³⁰³⁾: 귀찮아하다, 懶
 - 꺼리다³⁰⁴⁾³⁰⁵⁾: 꺼리다, 싫어하다, 憚, 惡
 - 두려워하다³⁰⁶⁾: 두려워하다, 恐
- 외 7개.

(2) 자각인지슬어³⁰⁷⁾

(가) 자각슬어³⁰⁸⁾

- 감각이 없다³⁰⁹⁾³¹⁰⁾³¹¹⁾: 감각이 없다, 마비되다, 不仁, 麻, 痿
- 견디다³¹²⁾: 견디다, 能, 任
- 고달프다³¹³⁾³¹⁴⁾³¹⁵⁾: 고달프다, 고생스럽다, 고통

藥出版社. 1997. p.419. “故聖人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

- 294) 자신 이외의 만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동양식을 표현하는 슬어
- 29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9. “如卒病, 不計時候服.”
- 29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名與身孰親, 身與貨孰多? 以隋侯之珠, 彈千仞之雀, 世必笑之, 何取之輕而棄之重耶! 殘軀六十有五, 耳目半失於視聽, 百脈沸騰而煩心, 身如眾派漂流, 瞑目則魂如浪去, 神氣衰於前日, 飲食減於曩時, 但應人事, 病皆彌甚, 以己之所有, 豈止隋侯之珠哉! 安於淡薄, 少思寡欲, 省語以養氣, 不妄作勞以養形, 虛心以維神, 壽夭得失, 安之於數, 得喪既輕, 血氣自然諧和, 邪無所容, 病安增劇? 苟能持此, 亦庶幾於道, 可謂得其真趣矣.”
- 29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以上五藥, 當於本證中隨所兼見證加減.”
- 298) 자신 이외의 대상과 관련있는 행동양식을 표현하는 슬어
- 29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聖人旨意, 重見疊出, 詳盡如此, 且垂戒云, 法於陰陽, 和於術數, 食飲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俱, 而盡終其天年, 度百歲乃去.”
- 30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脾胃兼化, 其病治之, 各從其宜, 不可定體; 肝肺之病, 在水火之間, 順逆傳變不同, 溫涼不定, 當求其耳.”
- 30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2. “病人飲入胃, 遽覺至臍下, 便欲小便, 由精氣不輸於脾, 不歸於肺, 則心火上攻, 使口燥咽乾, 是陰氣大盛, 其理甚易知也.”

302) 생명체의 감정을 표현하는 슬어

- 30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若虛損脾胃, 有宿疾之人, 遇此天暑, 將理失所, 違時伐化, 必因乏無力, 懶語氣短, 氣弱氣促, 似喘非喘, 骨乏無力, 其形如夢寐, 朦朧如煙霧中, 不知身所有也, 必大汗泄.”
- 30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聖人諄復其辭而不憚其煩者, 仁天下後世之心亦倦矣.”
- 30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腹痛兼發熱, 加黃芩; 惡寒或腹中覺寒, 加桂.”
- 30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5. “如耳鳴目黃, 頰頰腫, 頸、肩、臑、肘、臂外後廉痛, 面赤, 脈洪大者, 以羌活、防風、甘草、槁木, 通其經血, 加黃芩、黃連消其腫, 以人參、黃芪益其元氣而瀉其火邪; 如脈緊者, 寒也, 或面白善噎, 或面色惡, 皆寒也, 亦加羌活等四味, 當瀉足太陽, 不用連、芩, 少加附子以通其脈; 面色惡, 多悲恐者, 更加桂、附.”
- 307) 생명체의 감각이나 인지능력을 표현하는 슬어
- 308) 자신이 느끼는 정보를 표현하는 슬어
- 30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3. “若濕氣勝, 風證不退, 眩運麻木不已, 除風濕羌活湯主之.”
- 31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若肌肉濡潰, 痺而不仁, 傳力肉痿誣.”
- 31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又『氣交變論』曰: 歲土太過, 雨濕流行, 腎水受邪, 民病腹痛, 清厥意不樂, 體重煩冤; 甚則肌肉萎, 足痿不收, 行善瘦, 腳下痛, 飲發, 中滿食減, 四肢不舉.”
- 31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2. “夫氣虛不能寒, 血虛不能熱, 血氣俱虛, 不能寒熱.”

스럽다, 憊, 倦, 艱, 苦
의 31개.

(나) 인지술어³¹⁶⁾

- 강하다³¹⁷⁾³¹⁸⁾: 강하다, 剛, 大, 躋
 - 같게 하다³¹⁹⁾: 같게 하다, 同
 - 같다³²⁰⁾: 같다, 猶, 似, 如, 若, 同
- 의 58개.

라) 시간선후관계술어³²¹⁾

- 급하다³²²⁾³²³⁾: 짧다, 급하다, 促, 短
- 누리다³²⁴⁾: 누리다, 有

• 다하다³²⁵⁾: 다하다, 盡
의 10개.

마) 관계술어³²⁶⁾

- (1) 상생관계³²⁷⁾
- 돕다³²⁸⁾³²⁹⁾³³⁰⁾: 돕다, 도와주다, 助, 保, 扶持, 生
 - 보좌하다³³¹⁾: 보좌하다, 攝, 輔, 佐
 - 조장하다³³²⁾: 조장하다, 資
- 의 1개.
- (2) 상극관계³³³⁾
- 억제하다³³⁴⁾³³⁵⁾: 억누르다, 억제하다, 乘, 制

31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2. “脾爲勞倦所傷, 勞則氣耗, 而心火熾動, 血脈沸騰, 則血病, 而陽氣不治, 陰火乃獨炎上, 而走於空竅, 以至燎於周身, 反用熱藥以燥脾胃, 則謬之謬也.”

31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2. “頭作陣痛, 目中流火, 視物KT렐 KT렐, 耳鳴耳聾, 頭並口鼻, 或惡風寒, 喜日陽, 夜臥不安, 常覺痰塞, 膈咽不通, 口失味, 兩脅縮急而痛, 牙齒動搖, 不能嚼物, 陰汗出, 前陰冷, 行步欹側, 起居艱難, 掌中寒, 風痺麻木, 小便數而晝多夜頻, 而欠, 氣短喘喝, 少氣不足以息, 卒遺失無度.”

31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316) 정신활동의 상태를 표현하는 술어

31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4. “一法, 力大者爲君.”

31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9. “食罷, 四肢矯健, 精、氣、神皆出, 九竅通利是也, 口鼻氣息, 自不聞其音, 語聲清響如鍾.”

31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8. “滋以化源, 補以甘溫, 瀉以甘寒, 以酸收之, 以小苦通之, 以微苦辛甘輕劑, 同精導氣, 使復其本位.”

32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此謂之氣者,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漑.”

321) 시간의 변화, 선후관계를 서술하는 술어

32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夫飲食不節則胃病, 胃病則氣短精神少而生大熱, 有時而顯火上行, 獨燎其面, 『黃帝針經』云: 面熱者, 足陽明病.”

32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0. “如胸中氣壅滯, 加青皮二分; 如氣促, 少氣者, 去之.”

32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謹和五味, 骨正筋柔, 氣血以流, 腠理以密, 如是則骨氣以精, 謹道如法, 長有天命.”

32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8. “故血不可不養, 衛不可不溫, 血溫衛和, 營衛乃行, 得盡天年.”

326) 실제 혹은 현상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는 술어

327) 관념적 실제의 기능 혹은 현상을 촉진하는 관계를 서술하는 술어

32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3. “惡氣不發, 風雨不節, 白露不下, 則菑穰不榮; 賊風數至, 暴雨數起, 天地四時不相保, 與道相失, 則未央絕滅.”

32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言其汗者, 非正發汗也, 爲助陽也.”

33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五行相生, 木、火、土、金、水, 循環無端, 惟脾無正行, 於四季之末各旺一十八日, 以生四臟.”

33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4. “主病者爲君, 佐君者爲臣, 應臣者爲使.”

33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此因喜怒憂恐, 損耗元氣, 資助心火.”

333) 관념적 실제의 기능 혹은 현상을 억제하는 관계를 서술하는 술어

33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3. “如大便虛坐不得, 或大便了而不了, 腹中常逼迫, 血虛血澀也, 加當歸身三分; 如身體沉重, 雖小便數多, 亦加茯苓二分, 蒼朮一錢, 澤瀉五分, 黃柏三分, 時暫從權而祛濕也, 不可常用, 兼足太陰已病, 其脈亦絡於心中, 故顯濕熱相合而煩亂; 如胃氣不和, 加湯洗半夏五分, 生薑三片; 有嗽, 加生薑, 生地黃

- 업신여기다³³⁶⁾: 업신여기다, 陵, 侮

(3) 인과관계³³⁷⁾

- 근거하다³³⁸⁾³³⁹⁾³⁴⁰⁾³⁴¹⁾: 근거하다, 근원하다, 들다, 말미암다, 據, 本, 舉, 因, 緣, 由
 - 보복하다³⁴²⁾: 보복하다, 復
 - 보상하다³⁴³⁾: 보상하다, 報
- 외 2개.

(4) 관념적 주종관계³⁴⁴⁾

(가) 주도관계³⁴⁵⁾

- 경영하다³⁴⁶⁾: 경영하다, 영위하다, 營
- 조절하다³⁴⁷⁾³⁴⁸⁾³⁴⁹⁾: 조절하다, 調, 裁制, 節

二分, 以制半夏之毒; 如痰厥頭痛, 非半夏不能除, 此足太陰脾所作也; 如兼躁熱, 加黃柏, 生地黃以上各二分; 如無以上證, 只服前藥; 如夏月, 須加白芍藥三分; 如春月腹中痛, 尤宜加。”

- 33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火與元氣不兩立, 火勝則乘其土位, 此所以病也.”
- 33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所不勝乘之者, 水乘木之妄行而反來侮土, 故腎入心爲汗, 入肝爲泣, 入脾爲涎, 入肺爲痰.”
- 337) 관념적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는 슬어
- 33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豈特四者, 至於經論天地之邪氣, 感則害人五臟六腑, 及形氣俱虛, 乃受外邪, 不因虛邪, 賊邪不能獨傷人, 諸病從脾胃而生明矣.”
- 33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今舉經中言病從脾胃所生, 及養生當實元氣者條陳之.”
- 34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夫時禁者, 必本四時升降之理, 汗, 下, 吐, 利之宜.”
- 34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分經用藥, 有所據焉.”
- 34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2. “治脾胃虛而心火乘之, 不能滋榮上焦元氣, 遇冬腎與膀胱之寒水旺時, 子能令母實, 致肺金大腸相輔而來克心乘脾胃, 此大復其仇也.”
- 34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0. “『內經』所說少腹痛, 皆寒證, 從復法相報中來也.”
- 344) 관념적 현상에서 주종관계를 서술하는 슬어
- 345) 주인으로 주도하는 의미의 슬어
- 34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2. “弱則陰氣盛, 故陽氣不得經營.”

- 주관하다³⁵⁰⁾³⁵¹⁾³⁵²⁾: 주관하다, 지배하다, 책임지다, 主
- 외 1개.

(나) 종속관계³⁵³⁾

- 속하다³⁵⁴⁾: 속하다, 屬
- 합병되다³⁵⁵⁾: 합병되다, 併
- 제압되다³⁵⁶⁾: 제압되다, 畏, 懼, 刑

(5) 동반관계³⁵⁷⁾

- 합하다³⁵⁸⁾³⁵⁹⁾³⁶⁰⁾: 합하다, 合, 交, 併

- 34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夫飲食不節則胃病, 胃病則氣短精神少而生大熱, 有時而顯火上行, 獨燎其面, 『黃帝針經』云: 面熱者, 足陽明病.”
- 34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至於五味, 口嗜而欲食之, 必自裁制, 勿使過焉, 過則傷其正也.”
- 34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 35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胃既病, 則脾無所稟受, 脾爲死陰, 不主時也, 故亦從而病焉.”
- 35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蓋心主火, 小腸主熱, 여기 위부터 다시 검토 할 것火熱來乘土位, 乃濕熱相合, 故煩躁悶亂也.”
- 35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九竅者, 五臟主之.”
- 353) 주인에 종속됨을 뜻하는 슬어
- 35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0. “<大腸小腸五臟皆屬於胃胃虛則俱病論>”
- 35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2. “且濕熱相合, 陽氣日以虛, 陽氣虛則不能上升, 而脾胃之氣下流, 併於腎肝, 是有秋冬而無春夏.”
- 35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所勝妄行者, 言心火旺能令母實, 母者, 肝木也, 肝木旺則挾火勢, 無所畏懼而妄行也, 故脾胃先受之.”
- 357) 관념적 현상이 대등한 상태에서 함께 병행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슬어
- 35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3. “『易』曰: 兩儀生四象, 乃天地氣交, 八卦是也.”
- 35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3. “言陽明, 厥陰與何經相併而爲

(6) 추종관계³⁶¹⁾

- 따르다³⁶²⁾³⁶³⁾³⁶⁴⁾³⁶⁵⁾³⁶⁶⁾³⁶⁷⁾: 따르다, 隨, 制, 從, 依, 順, 附
- 본뜨다³⁶⁸⁾³⁶⁹⁾³⁷⁰⁾: 본뜨다, 本받다, 잇다, 象, 倣, 準, 準繩, 法, 承
- 순응하다³⁷¹⁾: 순응하다, 服, 順

病, 酌中以用藥, 如權之在衡, 在兩, 則有在兩之中; 在斤, 則有在斤之中也.”

- 36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蓋心主火, 小腸主熱, 여기 위부터 다시 검토 할 것火熱來乘土位, 乃濕熱相合, 故煩躁悶亂也.”
- 361) 관념적 현상에서 한쪽의 주도하에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서술하는 술어
- 36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或水附木勢而上爲眼澀, 爲眵, 爲冷淚, 此皆由肺金之虛而寡於畏也.”
- 36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9. “權者, 臨病制宜之謂也.”
- 36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故膽氣春升, 則餘臟從之; 膽氣不升, 則飧泄腸澀, 不一而起矣.”
- 36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法雖依證加減, 執方料病, 不依『素問』法度耳, 是以檢討『素問』『難經』及『黃帝針經』中說脾胃不足之源, 乃陽氣不足, 陰氣有餘, 當從六氣不足, 升降浮沉法, 隨證用藥治之.”
- 36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脾胃兼化, 其病治之, 各從其宜, 不可定體; 肝肺之病, 在水火之間, 順逆傳變不同, 溫涼不定, 當求責耳.”
- 36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法雖依證加減, 執方料病, 不依『素問』法度耳, 是以檢討『素問』『難經』及『黃帝針經』中說脾胃不足之源, 乃陽氣不足, 陰氣有餘, 當從六氣不足, 升降浮沉法, 隨證用藥治之.”
- 36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若亡津液, 汗大泄, 濕令亢甚, 則清肅之氣亡, 燥金受囚, 風木無以制, 故風濕相搏, 骨節煩疼, 一身盡痛, 亢則害, 承乃制是也.”
- 36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其氣象天, 故瀉而不藏, 此受五臟濁氣, 名曰傳化之府, 此不能久留, 輸瀉者也.”
- 37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聖人旨意, 重見疊出, 詳盡如此, 且垂戒云, 法於陰陽, 和於術數, 食飲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俱, 而盡終其天年, 度百歲乃去.”
- 37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9. “『生氣通天論』云: 蒼天之氣清淨, 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

외 1개.

(7) 상쟁관계³⁷²⁾

- 다투다³⁷³⁾: 다투다, 爭
- 맞서다³⁷⁴⁾³⁷⁵⁾³⁷⁶⁾³⁷⁷⁾: 맞서다, 방어하다, 방해하다, 저항하다, 當, 禦, 妨, 拒, 抗
- 방어하다³⁷⁸⁾³⁷⁹⁾³⁸⁰⁾³⁸¹⁾: 방지하다, 막다, 참다, 忍, 防, 遏

외 5개.

(8) 대체관계³⁸²⁾

- 대신하다³⁸³⁾: 대신하다, 代

(9) 회피관계³⁸⁴⁾

因時之序.”

- 372) 관념적 실체가 반대의 목적으로 경쟁하는 관계
- 37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遇卒風暴寒, 衣服不能禦者, 則宜爭努周身之氣以當之, 氣弱不能禦者病.”
- 37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不令妨其食, 當以意斟酌; 若防食則止, 候食進, 則再服.”
- 37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2. “故咳嗽氣短, 氣上, 皮毛不能禦寒, 精神少而渴, 情慘慘而不樂, 皆陽氣不足, 陰氣有餘, 是體有餘而用不足也.”
- 37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脾胃不足, 是火不能生土, 而反抗拒, 此至而不至, 是爲不及也.”
- 37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遇卒風暴寒, 衣服不能禦者, 則宜爭努周身之氣以當之, 氣弱不能禦者病.”
- 37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1. “與足太陽膀胱寒氣爲附經督脈, 其盛也, 如巨川之水, 疾如奔馬, 其勢不可遏.”
- 37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不令妨其食, 當以意斟酌; 若防食則止, 候食進, 則再服.”
- 38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5. “得煩減, 勿再服, 以防瀉陽氣之反陷也.”
- 38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5. “治因服補胃熱藥, 而致上下牙痛不可忍, 牽引頭腦滿熱, 發大痛, 此足陽明別絡入腦也.”
- 382) 관념적 실체를 대신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술어
- 38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9. “心不主令, 相火代之.”

- 끊다³⁸⁵): 끊다, 絶
- 삼가다³⁸⁶387)388): 피하다, 삼가다, 忌, 遠, 避

(10) 균형 관계³⁸⁹)

- 소통시키다³⁹⁰): 소통시키다, 導, 達, 疏, 和, 寬
- 조화롭다³⁹¹392)393): 순조롭다, 조화롭다, 順, 平, 和
- 화해하다³⁹⁴): 화해하다, 和解

(11) 관계불명³⁹⁵)

- 임하다³⁹⁶397)398): 당해내다, 임하다, 직면하다,

384) 관념적 실체 혹은 현상이 다른 실체 혹은 현상을 회피하는 것을 서술하는 술어

385)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平人氣象論』云: 人以水穀爲本, 故人絕水穀則死, 脈無胃氣亦死.”

38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又云: 用溫遠溫, 用熱遠熱, 用涼遠涼, 用寒遠寒, 無翼其勝也.”

38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2. “當此之時, 無病之人, 亦或有二證, 或避暑熱, 納涼於深堂大廈得之者, 名曰中暑.”

38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30. “又云: 溫能除大熱, 大忌苦寒之藥, 損其脾胃.”

389) 관념적 실체 혹은 현상의 조화를 서술하는 술어

39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足少陽膽經, 行身之側, 在太陽、陽明之間, 病則往來寒熱, 口苦胸脅痛, 只宜和解; 且膽者、無出無入, 又主發生之氣, 下則犯太陽, 汗則犯陽明, 利小便則使生發之氣反陷入陰中, 此三禁也.”

39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1. “中滿或但腹脹者, 加厚樸; 氣不順, 加橘皮; 氣滯, 加青皮一、橘皮三.”

392)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18. “又云: 陰之所和, 本在五味; 陰之五官, 傷在五味.”

393)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五常政大論』: 土平曰備化, 不及曰卑監.”

394)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6. “足少陽膽經, 行身之側, 在太陽、陽明之間, 病則往來寒熱, 口苦胸脅痛, 只宜和解; 且膽者、無出無入, 又主發生之氣, 下則犯太陽, 汗則犯陽明, 利小便則使生發之氣反陷入陰中, 此三禁也.”

395) 관념적 실체 혹은 현상간의 관계가 중의적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명확하지 않은 관계를 서술하는 술어

396)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53. “遇卒風暴寒, 衣服不能禦者, 則

當, 臨

- 민다³⁹⁹): 민다, 恃
 - 상응하다⁴⁰⁰401): 상응하다, 主, 應
- 외 2개.

III. 結論

본 연구에서는 『脾胃論』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어에 해당하는 용어를 공간, 시간, 물질의 생성과 소멸, 개념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분류를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한의학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지 않고 한의학적 관념상에 존재하는 관념적 실체에 대한 술어,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실체에 대한 술어, 인간의 감각과 정신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술어,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술어, 실체 혹은 현상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술어로 크게 분류를 하여 6단계 106개의 분류명으로 서술어를 분류하였다.

2. 대분류 아래의 하위분류는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깊이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연구 대상의 다양화를 통하여 세분화된 분류가 진행되면 개선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 비교적 깊은 단계의 분류가 이루어진 생성소멸과 공간변화에 관한 내용은 한의학에서의 증상, 변증, 치법, 효능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宜爭努周身之氣以當之, 氣弱不能禦者病.”

397)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5. “如鼻流清涕惡風, 或項、背、脊背強痛, 羌活、防風、甘草等分, 黃芪加倍, 臨臥服之.”

398)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3. “其注者, 以陽明在上, 中見太陰, 厥陰在上, 中見少陽爲說, 予獨謂不然, 此中, 非中外之中也, 亦非上中之中也, 乃不定之辭, 蓋欲人臨病消息, 酌中用藥耳, 以手足陽明、厥陰者, 中氣也, 在卯酉之分, 天地之門戶也.”

399)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48. “此蓋不得已而用之, 豈可恃賴日飲酒, 此方氣味辛辣, 偶因酒病服之, 則不損元氣, 何者? 敵酒病也.”

400)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0. “人身形以應九野, 左足主立春, 丑位是也; 左手主立夏, 辰位是也; 右手主立秋, 未位是也; 右足主立冬, 戌位是也.”

401) 劉河間 외3인.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22. “春主升, 夏主浮, 在人則肝心應之.”

확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성소멸 및 위치변화의 촉진과 억제는 虛實의 개념과 補瀉의 개념을 구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방향 정보를 가진 위치변화의 술어는 증상과 치법의 표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논문>

1. 고유미, 엄동명. 의미 네비게이션을 지원하는 온톨로지 기반 한의학 논문 검색 시스템 설계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5. 11(2). pp.1-12.
2. 김동진. 한의학 온톨로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질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 p.47.
3. 김철, 김상균, 송미영. 논문분석과 구축사례 조사를 통한 한의학 온톨로지 연구동향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8. 14(2). pp.121-129.
4. 김흥기, 김명기. 의료정보학에서의 온톨로지 기술. 대한의료정보학회지. 2003. 9(3). p.214.
5.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용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5. pp.(3-1)-(3-11).
6. 박경모, 임희숙, 박종현. Portege를 이용한 한의학의 구조화된 증상 입력을 위한 온톨로지 개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17(5). pp.1151-1156.
7. 이병욱, 엄동명. 한의학 용어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대한예방한의학회. 2009. 12(2). p.434.
8. 이현실. 온톨로지 기반 한의학 처방 지식관리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p.183.
9. 임형신, 황윤영, 엄동명, 이규철. OWL 기반의 온톨로지 도구 비교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6. 12(1). pp.2-3.
10. 정두영.脾胃論에 기재된 용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경북.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pp.16-20.

<단행본>

1. 劉完素, 李杲, 朱震亨.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p.417-426, 428-435, 437-453.
2. 대한한의학회 한의학 용어 및 정보 표준화 위원회 편. 한의학용어작성지침서. 서울. 대한한의학회. 2007. pp.12-19.

<기타>

1. 李東垣. 中華醫典(繁體版)[CD-ROM]·脾胃論.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